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의 타당화: KIIP-C와 KIIP-PD의 신뢰도와 타당도

김 영 환	진 유 경	조 용 래	권 정 혜	홍 상 황 [†]	박 은 영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Dept. of Health and Community Systems University of Pittsburgh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진주교육대학 교육학과	대구정신병원

본 연구의 목적은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KIIP-C)와 성격장애척도(KIIP-PD)를 표준화하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밝히는 것이다. KIIP-C와 KIIP-PD는 IIP에서 도출된 독립적인 검사이다. KIIP-C는 원형공간에서 대인관계문제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8개 척도, KIIP-PD는 성격장애를 선별하기 위한 3개의 척도와 성격장애군 C를 다른 환자군과 구분하기 위한 2개 척도 등 5개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검사를 대학생(N=1,460)과 성인(N=1,474) 표준화표본에 실시하여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KIIP-C와 KIIP-PD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69~.93, .68~.85,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각각 .59~.84, .61~.80의 범위였고 여러 타당도지표와 상관을 구한 결과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KIIP-C의 척도간 상관을 구하고 요인분석한 결과 원형 속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KIIP-PD의 경우 대부분의 문항들이 원판과 동일한 요인에 부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매우 유사하였으며, KIIP-C와 KIIP-PD가 대인관계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성격장애를 선별하는데 유용한 도구라는 점을 시사한다.

주요어 :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 성격장애척도, 대인관계문제, 성격장애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홍 상 황 / 경남 진주시 신안동 380 번지 진주교육대학 교육학과/
FAX : 055-745-8741 / E-mail: shhong@cue.ac.kr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대인관계문제는 누구나 경험하는 공통적인 문제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 사랑, 지지와 같은 긍정적 측면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미움, 증오, 배척과 같은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측면을 경험할 수도 있다. 특히 부정적 측면과 관련된 대인관계적 경험은 때때로 개인의 적응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리적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Horowitz, 1979; Leary, 1957). 대인관계문제는 심리적 적응문제 때문에 심리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핵심적 문제 중 하나이다(Horowitz, 1979; Horowitz & de Sales French, 1979; Horowitz, de Sales French, & Anderson, 1982; Horowitz & Vitkus, 1986). 또한 임상장면에서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을 인지적, 정서적, 대인관계적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망으로 구성된 복잡한 주관적 경험으로 볼 경우(Horowitz & Vitkus, 1986) 이러한 연결망에서 대인관계적 요소를 밝히고 수정함으로써 인지적, 정서적 요소를 변화시키고 전반적 증상수준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개발된 검사가 대인관계문제검사(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IIP; Horowitz, Rosenberg, Baer, Ureñón, & Villaseñor, 1988)이다.

Horowitz 등(1988)은 심리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면접장면을 녹화하여 대인관계문제와 관련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문항을 선정하고 요인분석하여 비주장성, 비사회성, 비친밀성, 비순종성, 과책임성 및 과통제성 등 6개 하위척도로 구성된 IIP를 제작하였다. 이 검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문제(It is hard for me to)를 기술한 78문항과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생기는 문제(These are things too much)를 기술한 49문항 등 127문항을 5점 척도에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IIP가 제작된 후 IIP의 척도구성에 대한 일련

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Barkham과 Hardy 및 Startup(1994)은 Horowitz 등(1988)이 대인관계문제 검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한 피험자의 수, 성비 및 지나치게 높은 아이젠 값 설정과 같은 방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하여 비주장성, 비사회성, 비지지, 과배려, 과의존, 과공격성, 비관여, 과개방 등의 8개 하위척도를 제안하였다.

Alden과 Wiggins 및 Pincus(1990)는 대인관계적 행동을 친애와 통제라는 2가지 기본 차원 또는 축을 중심으로 나타내는 대인관계 원형모형에 근거해서 Horowitz 등(1988)이 만든 IIP 127문항을 원형배열하고 지배·통제, 불신, 냉담, 사회적 위축, 비주장, 착취, 과양육, 간섭 등 8개 분원으로 구분하고 각 분원에 8문항씩 총 64문항을 선정하여 원형척도(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Circumplex Scale, IIP-C)를 구성하였다. Soldz, Budman, Demby 및 Merry(1995)는 외래환자들을 대상으로 시간이 제한적인 검사상황에 유용하도록 Alden 등(1990)이 개발한 원형척도의 단축형 IIP-SC(short version of the IIP-C)를 개발하였고, Weinryb, Gusravson, Hellström, Anderson, Broberg 및 Rylander(1996)는 정상 대학생 정신과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스웨덴판 원형척도를 구성하였다. 또한 최근의 여러 연구자들은 원형모형의 임상적 유용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과 장면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을 연구하였다(Matano & Locke, 1995; Wiggins & Trapnell, 1996). 그리고 Gude, Moun, Kaldestad 및 Friis(2000)은 IIP 127문항에서 48개 문항을 추출하여 주장성, 사회성, 대인적 민감성이라는 3가지 차원척도를 만들고 기존의 척도와 관련지위 심리측정적 속성을 연구하였다.

국내에서 김영환과 홍상황(1999)은 Alden 등(1990)이 사용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127개 문항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Alden 등(1990)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일부 문항들은 원형배열에

서 문항위치가 일치하지 않았지만 각 분원별로 일치하는 문항수는 3~6개, 평균 4.9문항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김영환과 홍상환(1999)은 일부 문항을 교체하거나 수정하여 64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판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KIIP-C)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박은영, 홍상환, 유연옥 및 김영환(2001)이 KIIP-C를 일반성인과 환자집단에 교차타당화한 결과 KIIP-C의 원형속성과 배열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Pilkonis, Kim, Proietti 및 Barkham(1996)은 개별적인 성격장애를 진단하기 위해 DSM과 같은 진단체계를 적용할 경우 타당성이 낮으므로 더 넓은 범주로서의 성격장애를 선별하고 면접기법을 통해 성격장애를 진단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빠른 시간내에 성격장애를 선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2가지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종합적 지표(overall marker) 중 하나는 만성적인 대인관계문제라는 가설에 따라 145명의 정신과환자를 대상으로 IIP를 실시하여 127문항에서 성격장애 유무 및 성격장애군간을 잘 구분하는 문항을 선정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47문항을 추출하여 대인적 과민성, 대인적 비수용성, 공격성, 사회적 인정욕구, 사회성부족 등 5개 척도의 성격장애척도(IIP Personality Disorder Scales, IIP-PD)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5가지 척도 중 대인적 과민성, 대인적 비수용성, 공격성 척도는 성격장애와 성격장애가 아닌 환자를 구분하는 문항, 사회적 인정욕구와 사회성부족 척도는 성격장애군 C(cluster C)와 다른 환자들을 구분하는데 유용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Kim과 Pilkonis(1999)는 문항반응이론을 적용하여 IIP-PD의 47개 문항에서 성격장애를 전형하는데 정보력이 가장 높은 25문항을 선택해서 단축형 IIP-PD를 구성하고 성격장애 유무를 예언하는데 있어서 원판과 단축형의 유용성을 비교하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IIP가 보고된 후로 Horowitz 등(1988)의 6개 척도 83문항, Alden 등(1990)의 IIP-C 8개척도 64문항, Barkham 등(1994)의 8개 척도 95문항, Soldz 등(1995)의 단축형 IIP-SC 32문항, Gude 등(2000)의 3개 차원척도 48문항과 같이 IIP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성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 IIP-C는 대인관계행동을 기술하는 16가지 변인들을 묶어서 8분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변인 간의 상호관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고, 대인관계 원의 중심에서 개인의 위치 또는 각도와 벡터길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특징적인 대인관계문제와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Pincus, 1994). 뿐만 아니라 성격장애환자의 특징적인 대인관계문제(Pincus & Wiggins, 1990; Soldz et al., 1995), 애착유형과 타인 지각에 따른 대인관계문제(Bartholomew & Horowitz, 1991; Horowitz & Malle, 1993; Horowitz, Rosenberg, & Bartholomew, 1993), 대인관계문제 유형에 따른 상이한 치료방법의 적용과 우울이나 사회적 불안과 같은 다양한 정신병리와 관련된 대인관계문제 유형을 밝히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다(Alden & Phillips, 1990; Gurtman, 1993, 1994, 1995; Wiggins & Pincus, 1989; 박은영 등, 2001).

미국에서 Pilkonis 등(1996)이 IIP-PD를 개발한 이후 진유경(영문표기 Kim, Y)이 주축이 되어 IIP-PD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IIP-PD는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Kim, Pilkonis, & Barkham, 1997), 비임상 표집에서의 성격장애선별 (Scarpa, Luscher, Smalley, Pilkonis, Kim, & Williams, 1999), 성격장애를 전형하는데 있어서 척도의 진단효율성과 수렴조작적 특징(Stern, Kim, Trull, Scarpa, & Pilkonis, 2000) 등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연구되고 활용되었다.

이처럼 IIP가 보고된 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

을 뿐만 아니라 Horowitz 등(1988)과 다른 연구자들이 요인분석하여 구성된 척도보다 IIP-C가 더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고 효용성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Horowitz, Alden, Wiggins 및 Pincus(2000)는 IIP-C의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고 척도명을 부분적으로 변경시켜 IIP라는 제목으로 표준화하여 출판하였다. 그런데 IIP-C와 마찬가지로 IIP-PD도 원래 IIP에서 유래된 척도이고 이 두 척도는 17개 문항이 중복되어 있다. 따라서 두 척도를 분리해서 표준화하기 보다 두 가지 척도의 문항을 합해서 하나의 검사지로 만들면 대인관계에 대한 전체적 영역을 평가하고 성격장애를 전형하는데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원판 IIP의 문항뿐만 아니라 한국의 내담자들이 호소하는 대인관계문제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하나의 검사지로 만든 후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밝힘으로써 한국형 대인관계 문제검사를 개발하고 표준화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교육통계연보에 근거하여 유충표집한 대학생 1,460명(남 677, 여 783)과 인구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유충표집한 성인 1,474명(남 735, 여 739)에게 KIIP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척도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가지 타당도지표를 사용하였는데, 타당도지표의 수와 포함되는 문항이 많아서 타당도지표를 두 유형, 타당성척도군 I과 II로 구분하고 대학생과 성인을 두 표본씩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즉 대학생 타당도표본 I과 성인 타당도표본 III에게는 타당성척도군 I, 대학생 타당도표본 II와 성인 타당도표본 IV에게는

표 1. 타당도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대학생			성인
	I	II	III	IV
<i>n</i>	91	73	86	75
평균연령(<i>SD</i>)	21.32 (2.39)	22.41 (1.89)	34.50 (10.48)	29.55 (7.41)
여자수(%)	48(52.7)	41(56.2)	51(59.3)	38(50.7)
교육수준(%)				
6년 이하	-	-	-	-
7~9년	-	-	3.5	4.0
10~12년	20.9	2.7	18.6	29.4
13~16년	76.9	97.3	58.1	55.3
17년 이상	2.2	-	19.8	11.3
결혼상태(%)				
미혼	97.8	98.6	44.7	74.7
기혼	1.1	1.4	55.3	24.0
재혼	-	-	-	-
별거	-	-	-	-
이혼	-	-	-	1.3
기타	1.1	-	-	-
직업(%)				
국가공무원	-	-	2.3	2.7
전문직	-	-	32.6	29.3
기술직	-	-	4.7	4.0
사무직	-	-	9.3	16.0
서비스업	-	-	5.8	9.3
판매업	-	-	-	4.0
농업/어업	-	-	1.1	-
기능직	-	-	2.3	-
노무자	-	-	1.2	-
무직	-	-	8.1	9.3
기타	100	100	32.6	25.4

타당성척도군 II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타당도표본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표 1과 같다.

도 구

IIP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를 표준화하기 위해 Horowitz 등(1988)이 만든 IIP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문항을 번역,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먼저 IIP 127개 원문항을 연구자들이 번역하고 번역한 문항을 영문학 전공교수에게 역번역하게 하여 원문항과 번역한 문항의 의미가 일치하는지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연구자가 우리나라 상담소에 내원한 182명의 내담자들이 호소한 대인관계문제(예,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너무 많이 따른다”)를 추출하고 3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과 성인 각각 120명에게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핵심적인 대인관계문제를 기술(예, “내 주장만 내세울 때가 너무 많다”)하도록 하여 문항을 더 추가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총 146개 문항으로 된 예비 검사를 만들었고 대학생 303명, 성인 284명에게 실시하여 문항별 반응빈도를 고려하고 수집자의 50% 이상이 극단적으로 편중된 반응을 한 문항을 제외하였다.

그 결과 원판 IIP와 동일하게 127개 문항으로 최종 확정하였는데, 이 중에서 원판 IIP 문항과 전혀 다른 내용의 문항(예, “정에 이끌려 손해 보는 일이 많다”)은 17개 문항이었다. 이렇게 선정한 문항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기 어려워하는 문제를 기술하는 66개 문항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친 데서 비롯되는 문제를 나타내는 61개 문항 등 두 가지 유형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수집자는 각 문항을 읽은 후 0(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매우 그렇다)까지 5점 평정척도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타당도지표

성격과 정신병리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 KIIP를 타당화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여러 척도를 두 가지 척도군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타당도척도군 I은 일반적으로 심리적 증상을 측정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고 타당한 것으로 입증된 도구들을 포함한다: ① 우울증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후군을 다루는 21문항으로 구성된 Beck의 우울검사(BDI-II; 권정혜, 2002), ② 40문항으로 구성된 정상적인 성인의 불안상태를 측정하는 상태-특성 불안검사(STAI-KYZ; 한덕웅, 이장호, 전검구, Spielberger, 2000), ③ 분노경험과 분노표현양식을 평가하는 44문항으로 구성된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XI-K; 전검구, 한덕웅, 이장호, 1998), ④ 다양한 심리적 증상을 다루는 90문항으로 구성된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타당도척도군 II는 각각의 IIP 척도들이 측정하고 있는 주제와 유사한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도구들을 포함한다: ① 개인이 경험하는 고독감을 평가하는 20문항의 정서적·사회적 고독척도(권석만, 1997), ② 사회적 장면에서 자신의 권리나 요구를 주장할 수 있는 정도를 평정하는 30문항의 Rathus 주장성척도(김영환, 홍상황, 1999; Rathus, 1973), ③ 다양한 정서장애와 행동장애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의존성을 평가하기 위한 대인관계의존검사(김영환, 홍상황, 1999; Hirschfeld, Klerman, Gough, Barrett, Korchin, & Chodoff, 1977), ④ 성격평가질문지(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AI; 김영환, 김지혜, 오상우, 임영란, 홍상황, 2001)의 척도 중 분노, 적개심과 관련된 태도와 행동적 특징을 평가하기 위한 공격성 척도, 대인관계에서 통제적이거나 순종적인 정도 및 공감하고 관여하거나 거절적이고 불신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배성 및 온정성 척도, ⑤ 순응적이

고 다른 사람을 공감하거나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의 의도를 의심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NEO-PI-R 원만성척도(이승은, 1992; 이인혜, 1997), ⑥ 사회적 장면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정도와 혐오적인 사회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측정하는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척도(SAD; 이정운, 최정훈, 1997), ⑦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측정하는 12문항의 단축형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척도(FNE; 이정운, 최정훈, 1997), 그리고 ⑧ 사회공포증의 인지적 취약성변인으로 알려진 역기능적 신념을 측정하기 위한 역기능적 신념검사(DBT; 조용래, 원호택, 1999)의 세 가지 하위척도 중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 척도로 구성하였다.

결 과

척도구성

KIIP-C

IIP-C는 이전의 Alden 등(1990)과 김영환과 홍상황(1999)의 원형척도 문항이 다소 불일치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들이 사용한 것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IIP 전체 127개 문항을 사용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즉 개별 문항의 편차점수¹⁾를 구하여 주성분분석과 베리맥스(varimax) 회전하여 요인부하량을 계산하고 이 요인부하량을 삼각측정 절차를 적용하여 2차원 상의 각도(angular location)로 변환시키고(Wiggins et al., 1989) 8가지 대인관

계분원의 이론적 중간점인 90°, 135°, 180°, 225°, 270°, 315°, 360°, 45°를 중심으로 나누고 각 분원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선별하였다. 그 결과 각 분원별로 13~14문항을 선정할 수 있었는데, 이 문항들에 대해서 각 분원의 핵심적인 대인관계주제, 문항공유치, 문항-전체 간 상관, 내적 합치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각 분원별로 10문항씩 총 80문항을 선정하여 통제지배(C1), 자기중심성(C2), 냉담(C3), 사회적 억제(C4), 비주장성(C5), 과순응성(C6), 자기희생(C7), 과관여(C8) 척도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8개 척도점수를 합해서 전체(CT)라고 하였다.

KIIP-PD

KIIP-PD는 원판 IIP-PD의 47개 문항을 모두 동일하게 사용하였으나 5개의 하위척도들에서 일부 문항들이 Pilkonis 등(1996)과는 다른 하위척도에 포함되었다. 선행 연구결과(김정호, 조용래, 진유경, 박상학, 김학렬, 김상훈, 표경식, 2000; 조용래, 진유경, 김정호, 2000; Cho & Kim, in press)와 표준화표본의 자료를 요인분석한 결과 및 각 문항내용을 고려하여 각 하위척도를 구성하였다. 그 결과 총 47개 문항 중 40개 문항은 원판 IIP-PD와 동일한 하위척도로 분류되었고 7개 문항(문항 1, 11, 15, 71, 88, 92, 97)은 원판과 상이한 하위척도에 포함되었다. 각 하위척도명과 문항수는 다음과 같다: 대인적 과민성(PD1, 8문항), 대인적 비수용성(PD2, 11문항), 공격성(PD3, 9문항), 사회적 인정욕구(PD4, 7문항), 사회성 부족(PD5, 12문항). 그리고 이전 연구들에서 성격장애 집단과 비성격장애 집단을 구분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밝혀진 3가지 하위척도들인 대인적 과민성, 대인적 비수용성, 공격성 척도의 합을 전체(PDT)라고 하였다.

따라서 미국에서 출판된 IIP는 64문항으로 구

1) 문항 편차점수란 개인의 대인관계문제점수 평균에서 각 점수의 편차를 구한 것인데, 이 변형된 점수를 사용하면 한 개인에게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문제가 되는 대인관계문제를 밝힐 수 있고 대인관계 측정치의 원형속성이 증가된다는 의미가 있다.

성된 원형척도(KIIP-C)이지만 한국형 대인관계문제 검사(KIIP)는 9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80개 문항은 KIIP-C에 채점되고 47개 문항은 KIIP-PD에 채점되며 KIIP-C와 KIIP-PD 간에는 28개의 문항이 중복되어 있다.

신뢰도

신뢰도는 Cronbach의 내적 합치도(α)와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내적 합치도

대학생과 성인 표준화표본에 대한 α 값과 문항간 상관평가를 계산하고 이전의 연구결과(김영환, 홍상환, 1999; Horowitz et al., 2000; Pilkonis et al., 1996)도 같이 제시하였다(표 2). KIIP-C와 KIIP-PD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69~.93, .68~.85의 범위였고 문항간 상관평가는 각각 .24, .26이었다.

표 2. 내적 합치도와 문항간 상관의 평균

척도	α		문항간 상관평균	
	대학생 ^a	성인 ^b	대학생 ^a	성인 ^b
원형척도(KIIP-C)				
C1. 통제지배	.84(.85)	.84(.76)	.34	.33
C2. 자기중심성	.77(.74)	.75(.81)	.25	.23
C3. 냉담	.78(.81)	.77(.86)	.27	.26
C4. 사회적 억제	.85(.84)	.81(.85)	.37	.30
C5. 비주장성	.80(.83)	.80(.88)	.29	.28
C6. 과순응성	.79(.73)	.76(.81)	.27	.24
C7. 자기희생	.70(.78)	.68(.80)	.19	.18
C8. 과관여	.71(.78)	.69(.76)	.20	.18
CT. 전체	.93(.90)	.93(.96)	.14	.14
성격장애척도 (KIIP-PD)				
PD1. 대인적 과민성	.63	.62(.83)	.18	.17
PD2. 대인적 비수용성	.74	.74(.83)	.21	.21
PD3. 공격성	.83	.83(.86)	.36	.36
PDT. 전체	.85	.85	.18	.17
PD4. 사회적 인정욕구	.79	.73(.90)	.35	.28
PD5. 사회성부족	.86	.84(.88)	.35	.30

주1. a: N=1,460, b: N=1,474.

주2. () 안의 내적 합치도는 KIIP-C 대학생 김영환과 홍상환(1999), KIIP-C 성인 Horowitz 등(2000), KIIP-PD 성인-Pilkonis 등(1996)의 연구결과임

검사-재검사 신뢰도

시간에 따른 척도점수의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D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 89명(평균간격 56.7일, $SD=1.51$)과 성인 84명(평균간격 56.2일, $SD=1.37$)을 대상으로 8주 간격으로 검사를 두 번 실시하였다. KIIP-C의 경우 표준 T점수 뿐만 아니라 개인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구체적인 문제 영역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편차 T점수(individual-based or ipsatized)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도 산출하

였고 이전의 연구결과(김영환, 홍상황, 1999)와 같이 제시하였다(표 3). KIIP-C의 표준 T점수와 편차 T점수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각각 .59~.84, .61~.80의 범위였고 KIIP-PD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9~.85였다.

타당도

타당도는 KIIP-C와 KIIP-PD를 구분하여 알아보

표 3. 전체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척도	표준 T점수			편차 T점수		
	대학생 ^a	성인 ^b	결합 ^c	대학생 ^a	성인 ^b	결합 ^c
원형척도(KIIP-C)						
C1. 통제지배	.62(.73)	.62(.56)	.64	.72	.75(.60)	.73
C2. 자기중심성	.59(.71)	.66(.78)	.61	.60	.73(.76)	.66
C3. 냉담	.80(.86)	.75(.73)	.77	.72	.74(.67)	.73
C4. 사회적 억제	.84(.88)	.71(.83)	.78	.61	.66(.67)	.62
C5. 비주장성	.76(.80)	.81(.77)	.78	.61	.58(.56)	.60
C6. 과순응성	.76(.74)	.78(.81)	.77	.65	.71(.67)	.68
C7. 자기회생	.65(.79)	.68(.68)	.67	.69	.66(.57)	.68
C8. 과관여	.62(.82)	.77(.63)	.69	.71	.80(.73)	.75
전체	.83(.93)	.84(.78)	.84			
성격장애척도 (KIIP-PD)						
PD1. 대인적 과민성	.68	.62	.67			
PD2. 대인적 비수용성	.63	.70	.66			
PD3. 공격성	.61	.71	.65			
전체	.68	.80	.72			
PD4. 사회적 인정욕구	.76	.61	.70			
PD5. 사회성부족	.82	.76	.79			

주1. a: $n=89$, b: $n=84$, c: $n=173$.

주2. () 안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이전의 다른 연구결과임: KIIP-C 대학생 김영환과 홍상황 (1999)의 16주 재검사, KIIP-C 성인 Horowitz 등(2000)의 7일 재검사 결과임.

았는데, 비교적 의미있는 상관이 지적된 지표를 중심으로 언급하였다. 그리고 KIIP-C는 여러 가지 타당도지표 간의 상관뿐만 아니라 척도간 상관과 요인분석을 통해 원형속성을 검토하였다.

KIIP-C

KIIP-C의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성격특성을 측정하는 지표 및 비사회성, 비주장성과 같은 특정 척도와 관련있는 기타 지표 (표 4)와의 상관을 계산하였다. 타당도지표와의

표 4. KIIP-C의 타당도지표

척도명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냉담	비사회성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	전체
PAI ^{ab}									
공격성	.49(.53)	.17(.26)	-.04(.04)	-.16(.09)	-.25(.21)	-.33(.36)	-.22(.20)	.27(.38)	-.04(.02)
지배성	-.01(.18)	-.34(.16)	-.42(.41)	-.64(.63)	-.74(.64)	-.54(.57)	-.40(.41)	-.09(.14)	-.66(.53)
온정성	.03(.23)	-.33(.38)	-.40(.50)	-.43(.51)	-.38(.19)	-.12(.07)	.09(.14)	.07(.23)	-.33(.33)
NEO-PI-R 원만성 ^{ab}									
신뢰성	-.26(.37)	-.54(.63)	-.26(.46)	-.29(.34)	-.30(.11)	-.20(.06)	-.14(.04)	-.20(.19)	-.40(.33)
솔직성	-.44(.34)	-.20(.14)	.08(.01)	.22(.05)	.21(.08)	.11(.20)	.03(.20)	-.35(.18)	-.03(.05)
이타성	-.20(.56)	-.45(.55)	-.32(.33)	-.19(.22)	-.07(.02)	.09(.21)	.30(.26)	-.01(.34)	-.16(.26)
순종성	-.29(.54)	-.12(.37)	.16(.01)	.28(.23)	.38(.48)	.30(.64)	.32(.58)	-.22(.10)	.23(.23)
겸양성	-.20(.23)	.08(.20)	.32(.47)	.43(.52)	.45(.49)	.34(.52)	.34(.31)	-.18(.10)	.35(.45)
유연성	.01(.12)	-.30(.22)	.08(.04)	.28(.08)	.15(.19)	.16(.36)	.40(.39)	.05(.01)	.16(.13)
FNE ^{ab}	.24(.27)	.26(.34)	.12(.45)	.44(.56)	.62(.50)	.51(.42)	.56(.42)	.52(.59)	.60(.67)
SAD ^{ab}	.06(.21)	.24(.21)	.54(.47)	.70(.74)	.55(.53)	.23(.27)	.31(.34)	.06(.41)	.50(.59)
Rathus 주장성 척도 ^{ab}	.02(.06)	-.19(.12)	-.44(.48)	-.74(.68)	-.78(.76)	-.57(.70)	-.55(.65)	-.18(.19)	-.66(.68)
IDI ^{ab}									
정서적 의존	.18(.35)	.20(.28)	.20(.34)	.23(.39)	.21(.28)	.18(.22)	.31(.21)	.32(.56)	.33(.45)
자신감 부족	.31(.19)	.51(.30)	.40(.54)	.67(.64)	.62(.54)	.49(.50)	.50(.44)	.40(.39)	.72(.66)
자율성 주장	.10(.30)	.21(.33)	.20(.18)	.10(.15)	-.13(.08)	-.08(.01)	-.11(.02)	-.06(.10)	.03(.12)
고독척도 ^{ab}									
총점	.30(.15)	.48(.61)	.50(.71)	.62(.75)	.43(.53)	.24(.48)	.42(.31)	.21(.22)	.59(.70)
정서적 고독	.34(.28)	.50(.65)	.49(.72)	.60(.74)	.43(.51)	.25(.42)	.42(.29)	.26(.34)	.60(.72)
사회적 고독	.22(.04)	.41(.49)	.48(.63)	.58(.68)	.39(.50)	.20(.50)	.36(.30)	.13(.06)	.51(.60)

주1. () 안은 대학생.

주2. a: 대학생 $n=73$, b: 성인 $n=75$.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30 이상이면 $p<.01$ 수준에서 유의미함.

상관패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인관계문제 전체점수는 Rathus의 주장성척도($r=-.66$), PAI의 지배성($r=-.66$), 온정성($r=-.33$), NEO-PI-R의 신뢰성($r=-.40$), 이타성($r=-.16$)과 부적 상관이 있었고 IDI의 자신감부족($r=.72$), 고독척도의 총점($r=.59$), 정서적 고독($r=.60$) 및 사회적 고독척도($r=.51$)와는 중정도의 정적 상관이 있었다.

통제지배척도와 자기중심성 척도는 NEO-PI-R의 하위척도와 전반적으로 부적 상관이 있었다. 냉담척도는 전체 고독점수($r=.50$)와 중정도의 상관이 있었고 PAI의 지배성($r=-.42$), 온정성($r=-.40$), Rathus 주장성척도($r=-.44$)와 부적 상관이 있었다. 비사회성 척도는 Rathus 주장성척도($r=-.74$), PAI의 지배성($r=-.64$)와는 부적 상관, 사회적 회피와 불안(SAD)척도($r=.70$)와 중정도 이상의 정적 상관이 있었다. 비주장성척도는 PAI의 지배성($r=-.74$), Rathus의 주장성척도($r=-.78$)와 강한 부적 상관이 있었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FNE)척도($r=.62$), IDI의 자신감부족($r=.62$), SAD($r=.55$)와 중정도 이상의 상관이 있었다. 과순응성척도는 Rathus 주장성척도($r=-.78$), PAI의 지배성척도($r=-.54$)와 부적 상관, FNE($r=.51$), 자신감부족 척도($r=.40$)와 상관이 높았다. 자기회생척도는 PAI의 지배성 $r=-.40$), Rathus 주장성척도($r=-.55$)와 부적 상관, FNE($r=.56$)와는 중정도의 정적 상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과관여척도는 NEO-PI-R의 유연성을 제외한 5가지 하위척도와 부적 상관이 있었고 FNE($r=.50$)와 중정도의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8가지 하위척도는 PAI의 공격성, 지배성, 온정성 척도, NEO-PI-R의 신뢰성, 솔직성, 이타성 하위척도, Rathus 주장성척도와 대체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KIIP-C의 8개 척도와 PAI의 지배성과 온정성 척도 간의 상관패턴

이었다. PAI 지배성척도는 KIIP-C의 통제지배척도에서 비주장성척도, PAI 온정성척도는 KIIP-C의 통제지배척도에서 비사회성척도에 이르기까지 상관관계수가 증가하다가 그 다음 척도부터 낮아지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관패턴은 PAI의 지배성과 온정성 척도, IIP-C의 8개 하위척도 모두가 대인관계의 양극적 차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이기 때문일 수 있다.

KIIP-C의 원형속성: 척도가 원형배열을 이루는지 확인하기 위해 척도간 상관을 구하고 편차점수를 요인분석하였다. 척도의 표준 T점수와 편차 T점수간 상관은 각각 표 5와 6이다.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하나의 척도를 중심으로 가까운 척도와는 상관이 높고 그 분원에서 멀어질수록 상관이 낮았으며 반대편 분원과는 가장 상관이 낮았다. 이러한 상관패턴은 척도의 편차 T점수간 상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표 6).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IIP-C의 원형속성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7은 동일한 척도의 표준 T점수와 편차 T점수 간의 상관이다. 이 표에서 모든 상관계수가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동일한 척도임에도 불구하고 상관이 1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다. 이는 표준 T점수와 편차 T점수의 채점방식이 다르고 이 두 점수가 제공하는 정보도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특정 척도의 편차 T점수가 가장 높다고 해서 대학생과 성인 표집에서 획득한 표준 T점수 또는 그 척도에서 경험하는 전반적 불편감수준이 가장 높다는 것은 아니다.

척도가 원형배열을 이루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준화자료의 개인편차점수를 주성분분석, 베리맥스 회전하였다(표 8). 표 8은 대학생과 성인 표본에서 추출한 요인 1과 요인 2의 요인부하량이

표 5. KIIP-C의 표준 T점수간 상관

	원형척도(IIP-C)								전체
	C1	C2	C3	C4	C5	C6	C7	C8	
C1. 통제지배	-	.56	.31	.29	.06	.03	.10	.62	.53
C2. 자기중심성	.62	-	.62	.48	.33	.14	.05	.35	.65
C3. 냉담	.31	.58	-	.72	.51	.32	.22	.19	.74
C4. 사회적 억제	.21	.47	.79	-	.61	.46	.36	.27	.79
C5. 비주장성	.05	.24	.51	.64	-	.73	.54	.25	.77
C6. 과순응성	-.02	.06	.32	.48	.75	-	.67	.31	.69
C7. 자기회생	.01	-.06	.17	.32	.57	.71	-	.43	.61
C8. 과관여	.58	.31	.16	.19	.25	.30	.42	-	.61
전체	.49	.59	.74	.79	.77	.69	.59	.59	-

주1. - 선 위는 성인표본(N=1,474), 아래는 대학생표본(N=1,460).

주2.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10이상이면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함.

표 6. KIIP-C의 편차 T점수간 상관

	원형척도(KIIP-C)							
	C1	C2	C3	C4	C5	C6	C7	C8
C1. 통제지배	-	.46	.05	-.08	-.35	-.23	-.05	.56
C2. 자기중심성	.59	-	.38	.07	-.14	-.27	-.28	.12
C3. 냉담	.11	.39	-	.40	.04	-.17	-.21	-.24
C4. 사회적 억제	-.13	.13	.55	-	.14	-.03	-.08	-.24
C5. 비주장성	-.34	-.21	-.01	.17	-	.52	.28	-.20
C6. 과순응성	-.28	-.33	-.19	-.01	.56	-	.53	.02
C7. 자기회생	-.09	-.31	-.24	-.10	.34	.60	-	.26
C8. 과관여	.54	.16	-.24	-.32	-.18	.03	.29	-

주1. - 선 위는 성인표본(N=1,474), 아래는 대학생표본(N=1,460).

주2.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06이상이면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함.

표 7. KIIP-C의 표준 T 점수와 편차 T 점수간 상관

척도	대학생	성인
C1. 통제지배	.50	.48
C2. 자기중심성	.44	.42
C3. 냉담	.35	.37
C4. 사회적 억제	.31	.33
C5. 비주장성	.34	.34
C6. 과순응성	.40	.39
C7. 자기희생	.46	.44
C8. 과관여	.46	.44

주1. 대학생표본 $N=1,460$, 성인표본 $N=1,474$.

주2. 모든 상관계수가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함.

표 8. 개인 편차점수의 주성분분석 결과

척도	대학생표본		성인표본	
	요인 1	요인 2	요인 1	요인 2
C1. 통제지배	-.709	.406	-.649	.492
C2. 자기중심성	-.723	-.089	-.667	-.090
C3. 냉담	-.333	-.674	-.339	-.624
C4. 비사회성	.005	-.739	-.034	-.610
C5. 비주장성	.678	-.174	.657	-.245
C6. 과순응성	.760	.181	.751	.161
C7. 자기희생	.593	.439	.591	.438
C8. 과관여	-.257	.773	-.233	.795

주1. 대학생표본 $N=1,460$, 성인표본 $N=1,474$.

주2. 주성분분석, varimax 회전

다. 요인 1은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척도와 정적 부하량,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척도와 부적 부하량이 나타났고 요인 2는 과관여척도와 정적 부하량, 냉담과 비사회성 척도와 부적 부하량이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분석 결과는 대인관계

문제가 친애-온정성 축과 지배-통제라는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8의 요인구조를 두 직교차원의 원형공간에 나타낸 것이 그림 1이고 미국의 성인 표준화표본 (Horowitz et al., 2000)에서 얻어진 원형배열을 나타낸 것이 그림 2이다. x축에 표시되어 있는 요인 1은 친애 축, y축에 표시되어 있는 요인 2는 통제지배 축이다. 이처럼 요인을 수직으로 배열한 것은 두 요인간의 직교성과 독립성을 가정하기 때문이다. 대학생과 성인에서 추출된 요인 1간의 상관은 $r=.999(p<.001)$, 요인 2간의 상관은 $r=.993(p<.001)$ 이었다. 이는 두 표본에서 추출된 요인구조가 매우 유사하고 8개 척도의 원형배열과 위치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성인표본에서 얻어진 그림 2와 비교할 때 축이 역시계 방향을 더 회전되어 있지만 8개 척도가 원형배열을 이루는 것은 유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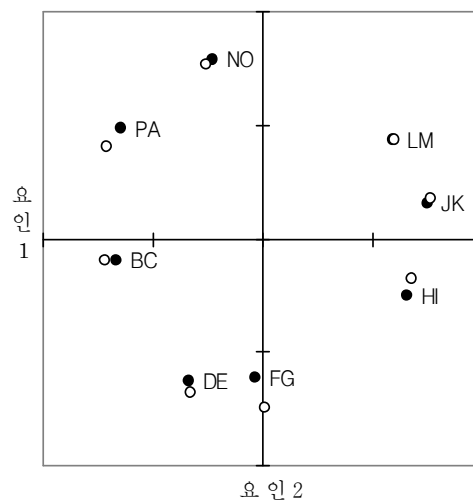


그림 1. 한국 대학생(●)과 성인(○)의 원형척도 요인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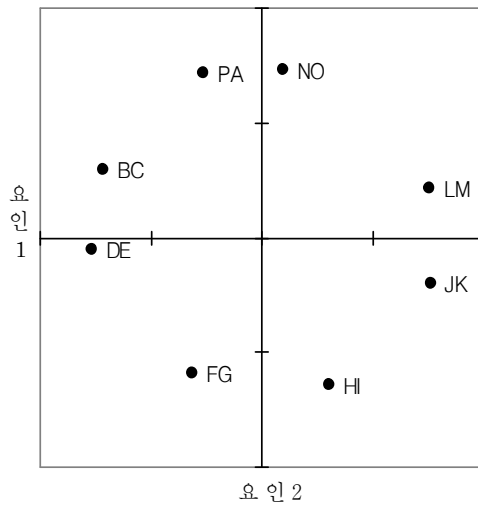


그림 2. 미국 성인의 원형척도 요인구조

KIIP-PD

KIIP-PD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각 하위척도별로 비슷한 구성개념이나 상이한 구성개념들을 각각 측정하는 여러 다른 평가도구들과의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그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고 각 하위척도별로 비슷한 구성개념을 재는 척도들과의 상관을 중심으로 결과를 요약하였다.

대인적 과민성척도는 FNE($r=.63$), SCL-90-R의 대인예민성($r=.46$), DBT의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r=.51$), IDI의 자신감부족($r=.57$) 및 정서적 의존($r=.44$) 척도들과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Rathus 주장성척도($r=.54$) 및 PAI의 지배성척도($r=.46$)와는 중간 정도의 부적 상관이 있었다. 대인적 비수용성척도의 경우 STAXI의 분노표현 전체($r=.55$), 고독척도의 정서적 고독($r=.51$), SCL-90-R의 대인예민성($r=.51$)과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NEO-PI-R 원만성 척도의 신뢰성($r=.41$) 및 이타성($r=.36$) 척도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공격성척도는 STAXI의 분노표현 전체($r=.60$), 특성분노 전체($r=.55$) 및 특성분노 기질($r=.49$), SCL-90-R의 적대감($r=.46$), PAI의 공격성($r=.53$)과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이 있었고 STAXI의 분노표현 통제($r=.39$)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인정욕구척도는 FNE($r=.65$), IDI의 자신감부족($r=.61$), DBT의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r=.29$), 고독척도의 정서적 고독($r=.42$)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와 함께 Rathus 주장성척도($r=.59$), PAI의 지배성척도($r=.52$)와는 중간 정도의 부적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사회성 부족척도는 IDI의 자신감부족($r=.72$), SAD($r=.68$), FNE($r=.58$), 고독척도 총점($r=.59$)과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 SCL-90-R의 대인예민성($r=.61$)과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 Rathus 주장성척도($r=.80$), PAI의 지배성척도($r=.75$)와 중간 정도의 부적 상관이 있었다.

KIIP-PD의 요인구조: KIIP-PD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 표준화표본 1,460명과 성인 표준화표본 1,474명을 각각 대상으로 Pilkonis 등(1996)이 원판 IIP-PD를 개발할 당시에 사용하였던 방법과 동일하게 요인분석을 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성격장애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잘 구분하는 것으로 알려진 28개 문항에 대하여 요인 수를 3개로 지정한 후 주축분해법과 사각회전법을 사용하였다. 그 다음에는 성격장애 군집 C와 그렇지 않은 집단들을 잘 변별하는 것으로 밝혀진 나머지 19개 문항에 대하여 요인 수를 2개로 지정한 후 주축분해법과 사각회전법을 적용하였다.

28개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대학생 표본에서 각 요인별 고유치(설명변량)를 살펴보면 요인 1(대인적 비수용성)이 6.08(21.72%), 요인 2(대인적

표 9. KIIP-PD의 타당도지표

지 표	대인적 과민성	대인적 비수용성	공격성	전체점수	사회적 인정욕구	사회성 부족
STAXI ^{ab}						
상태분노	.25(.18)	.20(.24)	.22(.28)	.28(.28)	.17(.08)	.23(.09)
특성분노: 전체	.28(.37)	.48(.31)	.55(.49)	.53(.46)	.20(.18)	.16(.01)
특성분노: 기질	.33(.26)	.49(.28)	.49(.53)	.52(.43)	.22(.15)	.21(.03)
특성분노: 반응	.16(.37)	.35(.26)	.46(.32)	.39(.37)	.17(.16)	.11(-.03)
분노표현: 전체	.35(.57)	.55(.48)	.60(.60)	.60(.65)	.24(.29)	.39(.33)
분노표현: 억제	.36(.54)	.37(.38)	.42(.26)	.47(.47)	.38(.48)	.45(.43)
분노표현: 표출	.09(.31)	.38(.30)	.44(.48)	.37(.43)	-.02(.05)	.13(.08)
분노표현: 통제	-.19(-.41)	-.39(-.38)	-.39(-.57)	-.37(-.54)	-.01(-.10)	-.13(-.21)
SCL-90-R ^{ab}						
대인예민성	.46(.56)	.51(.45)	.42(.45)	.53(.58)	.38(.32)	.61(.52)
적대감	.27(.32)	.35(.33)	.46(.46)	.41(.44)	.18(.16)	.33(.18)
PAI ^{cd}						
공격성	-.15(.07)	.13(.30)	.53(.56)	.25(.41)	-.23(-.10)	-.21(-.19)
지배성	-.46(-.36)	-.28(-.18)	-.15(-.09)	-.38(-.25)	-.52(-.33)	-.75(-.66)
NEO-PI-R 원만성 ^{cd}						
신뢰성	-.13(-.07)	-.41(-.53)	-.33(-.51)	-.39(-.46)	-.11(-.13)	-.34(-.28)
이타성	.08(-.09)	-.36(-.59)	-.23(-.57)	-.24(-.56)	.12(.13)	-.19(-.16)
FNE ^{cd}	.63(.61)	.24(.44)	.32(.37)	.51(.60)	.65(.66)	.58(.57)
SAD ^{cd}	.32(.35)	.28(.28)	.16(.41)	.32(.43)	.28(.39)	.68(.69)
DBT의 척도 2 ^{cd}	.51(.52)	.16(.21)	.10(.18)	.32(.38)	.29(.54)	.21(.26)
Rathus 주장성 척도 ^{cd}	-.54(-.38)	-.14(-.08)	-.15(-.11)	-.34(-.24)	-.59(-.68)	-.80(-.72)
IDI ^{cd}						
정서적 의존	.44(.49)	.27(.39)	.27(.38)	.42(.51)	.41(.35)	.27(.35)
자신감 부족	.57(.45)	.46(.35)	.36(.36)	.59(.48)	.61(.54)	.72(.61)
고독척도 ^{cd}						
총점	.36(.37)	.48(.56)	.33(.33)	.52(.52)	.40(.49)	.59(.69)
정서적 고독	.38(.43)	.51(.60)	.37(.44)	.56(.61)	.42(.51)	.59(.67)
사회적 고독	.30(.28)	.40(.45)	.25(.17)	.43(.36)	.33(.43)	.54(.64)

주1. () 안은 대학생. a: 대학생 $n=91$, b: 성인 $n=86$, c: 대학생 $n=73$, d: 성인 $n=75$.

주2.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28이상이면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함.

주3.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31이상이면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함.

표 10. KIIP-PD의 요인별 요인구조계수: 대학생과 성인 표본

문항번호	원판분류	요인1(IS)	요인2(IA)	요인3(A)	요인4(NSA)	요인5(LS)
1(1) ^a	IS		.39(.44)			
2(2)	NSA				(.51)	.34
3(3)	LS					.45(.55)
9(4)	LS					.60(.64)
11(5) ^a	NSA					.64(.61)
4(6)	IA		.49(.52)			
13(7)	IA		.40(.43)			
15(8) ^a	NSA					.56(.52)
18(9)	LS					.60(.71)
105(10)	LS					.49(.57)
24(11)	LS					.55(.54)
30(12)	IA		.59(.48)			
32(13)	IA		.51(.55)			
22(14) ^a	IA	.33(.30)				
28(15)	LS				(.38)	.46
26(16)	IA		.40(.35)			
6(17)	IS	.38(.40)				
8(18)	IS	.33(.33)				
37(19)	IA		.54(.51)			
39(20)	IA		.52(.50)			
40(21)	IA		.49(.56)			
20(22)	IS	.40(.32)				
41(23)	LS					.55(.55)
46(24)	NSA				(.53)	.46
47(25)	LS					.58(.68)
67(26)	A			.56(.59)		
69(27)	IS	.50(.62)				
73(28)	A			.63(.59)		
84(29)	IS	.54(.52)				
75(30)	A			.62(.67)		
76(31)	NSA				.54(.61)	
88(32) ^a	IS			.57(.49)		
80(33)	A			.61(.65)		
78(34)	NSA				.66(.65)	
93(35)	LS					.60(.71)
82(36)	NSA				.63(.64)	
90(37)	NSA				.65(.71)	
94(38)	NSA				.50(.50)	
86(39)	A			.68(.71)		
98(40) ^a	IS			.39(.38)		
92(41) ^{ab}	IS		.38(.45)	.38		
99(42)	A			.61(.67)		
97(43) ^a	IS			.61(.51)		
71(44)	IA	(.44)		.43		
103(45)	LS					.55(.60)
101(46)	IS	.41(.49)				
106(47)	A			.50(.46)		

주1. 대학생표본 N=1,460, 성인표본 N=1,474.

주2. ()안의 문항번호는 원판 KIIP-PD의 문항번호이고 () 안의 요인구조계수치는 대학생표본을 대상으로 한 결과임.

주3. a문항은 두 집단 모두 원판에서와 다른 요인에 일관되게 부하됨을 나타냄.

주4. b문항 41은 성인집단의 경우 요인 2와 요인 3에 이중으로 부하됨을 나타냄.

주5. IS: 대인적 과민성, IA: 대인적 비수용성, A: 공격성, NSA: 사회적 인정욕구, LS: 사회성 부족.

과민성)가 2.10(7.51%), 요인 3(공격성)이 1.84(6.57%)이었으며, 28개 문항 전체 변량 중 이 세 요인이 설명하는 변량은 모두 합쳐서 35.80%이었다. 각 요인별 상관계수는 요인 1과 요인 2가 $r=.24$, 요인 2와 요인 3이 $r=.29$, 요인 1과 요인 3이 $r=.46$ 이었다. 성인 표본의 경우 각 요인별 고유치(설명변량)를 살펴보면 요인 1(공격성)이 5.95(21.24%), 요인 2(대인적 비수용성)가 2.03(7.26%), 요인 3(대인적 과민성)이 1.84(6.56%)이었으며, 28개 문항 전체 변량 중 이 세 요인이 설명하는 변량은 모두 합쳐서 35.06%이었다. 각 요인별 상관계수는 요인 1과 요인 2가 $r=.41$, 요인 2와 요인 3이 $r=.26$, 요인 1과 요인 3이 $r=.28$ 이었다.

19개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대학생 표본에서 각 요인별 고유치(설명변량)를 살펴보면 요인 1(사회적 인정욕구)이 6.21(32.692%), 요인 2(사회성 부족)가 2.03(10.67%)이었고 19개 문항 전체 변량 중 이 두 요인이 설명하는 변량은 모두 합쳐서 43.36%이었다. 요인 1과 요인 2의 상관계수는 $r=.49$ 이었다. 성인 표본의 경우 각 요인별 고유치(설명변량)는 요인 1(사회성 인정욕구)이 5.55(29.22%), 요인 2(사회성 부족)가 1.78(9.35%)이었고 19개 문항 전체 변량 중 이 두 요인이 설명하는 변량은 모두 합쳐서 38.56%이었다. 요인 1과 요인 2의 상관계수는 $r=.49$ 이었다.

표 10은 각 요인별 해당 문항번호와 요인구조 계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47개 문항 중 4개 문항(문항 2, 28, 46, 71)이 성인과 대학생 표본간에 서로 다른 요인에 부하되었고, 43개 문항은 두 집단 모두 동일한 요인에 부하되었다. 또한 8개의 문항(1, 11, 15, 22, 88, 92, 97, 98)은 대학생과 성인 표본 모두에서 원판 IIP-PD의 문항 분류와는 달리 분류되었고, 35개 문항은 두 표본에서 모두 원판과 동일한 요인에 부하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IIP에서 도출된 KIIP-C의 한국판을 재구성하고 KIIP-C와 KIIP-PD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KIIP-C는 미국에서 개발된 문항과 척도구성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한국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원판 IIP-C의 경우 64문항, 8개 원형척도이지만 한국판의 경우 80문항, 8개 원형척도이고 중복되는 문항은 각 하위척도별로 4~6개, 총 46문항이었다. 그리고 KIIP-C의 8번째 척도는 미국판의 경우 척도명이 간섭(intrusive)이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문항의 의미를 검토하여 과관여라고 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국의 각 지역에서 유충표집한 대학생과 성인 표준화표본을 대상으로 KIIP-C와 KIIP-PD의 내적 합치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및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KIIP-C의 내적 합치도는 .69~.93, 중앙치는 대학생과 성인 각각 .79, .77이었다. 그리고 KIIP-PD의 내적 합치도는 .68~.85, 중앙치는 대학생과 성인 모두 .81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낮기는 하지만 내적 합치도가 너무 높을 경우 척도에 포함된 문항들의 의미가 지나치게 동질적 또는 비독립적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얻어진 내적 합치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문항간 상관평균을 산출한 결과에서도 알 수 있었는데, KIIP-C와 KIIP-PD의 경우 각각 .24, .26이었다. 이는 두 척도의 문항들이 상당히 독립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8주 간격으로 두 번 검사한 KIIP-C 표준 T점수와 편차 T점수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각각 .59~.84, .61~.80의 범위에었는데 다른 척도점수의 재검사신뢰도는 대학생과 성인간에 유사하였

으나 자기중심성척도(C2)만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을 대상으로 7일 간격으로 재검사한 Horowitz 등(2000)의 결과와 비슷하였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0주 간격으로 재검사한 김영환과 홍상황(1999)의 결과에 비해서는 다소 낮았다. 그리고 KIIP-PD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9 ~.85였다. 이러한 결과는 KIIP-C와 KIIP-PD 척도 점수가 시간적 변화에 안정적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격과 정신병리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여러 지표들과 KIIP-C와 KIIP-PD 척도들 간의 상관을 구한 결과, 여러 가지 상관패턴에서 이 두 검사의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가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각 척도가 측정하려고 하는 것과 동일한 구성개념을 재는 척도간에는 상관이 높았고 상이한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척도와는 상관이 낮거나 역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IP-C로 측정한 대인관계문제 전체점수는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지표와의 상관이 .44~.62이었고 공유변량은 19% ~38%이었다. 그 점수는 이러한 부정적 정서 이외에도 자신감 부족,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및 고독과 같은 여러 가지 심리적 특징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통제지배척도와 PAI 지배성척도간의 상관이 낮은 것이다. 이는 PAI의 지배성척도가 통제적이고 순종적인 정도 뿐만 아니라 독립성, 주장성 등을 다루는 반면 통제지배척도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점에 초점을 두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KIIP-PD의 5가지 하위척도들은 해당 구성개념의 내용에 따라 대인예민성,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고독, 낮은 신뢰성, 분노표현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 자신감 또는 주장성 부족 등 여러 대인관계문제들과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대인관계문제가 정서적, 인지적 요소와

하나의 연결망을 구성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동시에 대인관계문제를 호소할 경우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개입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KIIP-C 척도가 원형배열을 이루는지 확인하기 위해 척도간 상관을 구하고 편차점수를 요인분석한 결과 표준 T점수와 편차 T점수 모두 하나의 척도를 중심으로 가까운 척도와는 상관이 높고 그 분원에서 멀어질수록 상관이 낮았으며 반대편 분원과는 가장 상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 성분분석해서 추출한 요인구조를 두 가지 직교차원에서 나타낸 결과 대학생과 성인에서 얻은 척도의 위치와 원형배열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두 가지 원형속성은 기존의 연구결과(김영환과 홍상황, 1999; Alden et al., 1994; Horowitz et al., 2000)와 매우 유사하였으나 축의 위치는 역시계방향으로 더 회전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원판 IIP-PD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KIIP-PD의 요인구조를 탐색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47개 문항 중 35개 문항이 대학생과 성인 표본 모두에서 5개의 해당 요인에 원판과 동일하게 부하되었으며, 8개의 문항은 두 집단 모두 다른 요인에 일관되게 부하되었다. 두 집단간에 서로 다른 요인에 부하된 문항은 4개이었다. 이 결과들은 우리나라 표본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사용한 다른 연구(Cho & Kim, in press)의 결과와 함께 KIIP-PD의 구성타당도를 지지하는 것으로 시사된다.

요약하면 KIIP-C와 KIIP-PD는 내적 합치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 측면에서 신뢰롭고 타당하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99개 문항을 한 번에 실시함으로써 대인관계 전 영역을 파악하고 성격장애를 선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임상심리학의 이론적 연구와 임상 실

제, 그리고 다른 여러 장면에서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는 향후 연구에서 몇 가지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과 성인의 두 정상집단에 대해서만 연구되었으므로 연구대상을 임상표본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에게로 확장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교차타당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KIIP-PD의 경우 우리나라 연구들을 종합하여 문항분류를 원판과 달리 일부 조정하기는 하였으나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정상인과 다양한 임상진단집단을 대상으로 성격장애의 유무와 성격장애 군집의 유형을 선별할 때의 임상적 유용성, 그리고 분할점수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참고문헌

- 권석만 (1997). 대학생의 고독: 정서적·사회적 고독척도의 개발. *학생연구*, 32, 15-28.
- 권정혜 (2002). BDI-II의 신뢰도와 타당도. *심사중*.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영환, 김지혜, 오상우, 임영란, 홍상황 (2001). *성격평가질문지 실시요강*. 서울: 학지사
- 김영환, 홍상황 (1999). 대인관계평가도구의 표준화 연구: 대인관계문제검사와 원형척도 성격논총, 30, 537-594.
- 김정호, 조용래, 진유경, 박상학, 김학렬, 김상훈, 표경식 (2000). 정신과 환자들의 대인관계 문제와 정신병리의 관계. 2000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62-263.
- 박은영, 홍상황, 유연옥, 김영환 (2001). 대인관계 문제검사 원형척도의 교차타당화와 임상적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 331-344.
- 이승은 (1992). NEO-PI-R 성격검사의 신뢰도 및 타당도 예비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인혜 (1997). NEO-PI-R의 타당성 연구. *성격 및 개인차연구*, 6, 57-70.
- 이정운, 최정훈 (1997). 한국판 사회공포증 척도 (K-SAD, K-FNE)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 251-264.
- 전검구, 한덕웅, 이장호 (1998). 상태특성 분노표현 질문지(STAXI-K)의 표준화 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 건강*, 3, 18-32.
- 조용래, 원호택 (1999). 사회공포증에 대한 인지적 평가 III: 역기능적 신념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 141-162.
- 조용래, 진유경, 김정호 (2000). 정신병과 신경증 환자들의 대인관계 문제. 2000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60-261.
- 한덕웅, 이장호, 전검구, Spielberger(2000). *상태-특성불안 검사 YZ형 실시와 사용 설명서*. 서울: 학지사.
- Alden, L. E., & Phillips, N. (1990). An interpersonal analysis of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499-513.
- Alden, L. E., Wiggins, J. S., & Pincus, A. L. (1990). Construction of circumplex scales for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 521-536.
- Barkham, M., Hardy, G. E., & Startup, M. (1994). The structure, validity, and clinical relevance of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7, 171-185.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Cho, Y., & Kim, Y. (in press). Factor structure of IIP scales for personality disorders(IIP-PD) in a Korean sample: Application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Gude, T., Moun, T., Kaldestad, E., & Friis, S. (2000).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A three-dimensional balanced and scalable 48-item vers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74, 296-310.
- Gurtman, M. B. (1993). Constructing personality tests to meet a structural criterion: Application of the interpersonal circumplex. *Journal of Personality*, 61, 237-261.
- Gurtman, M. B. (1994). The circumplex as a tool for studying normal and abnormal personality: A methodological primer. In S. Strack & M. Lorr (Eds.), *Differentiating normal and abnormal personality* (pp. 243-263). New York: Springer.
- Gurtman, M. B. (1995). Personality structure and interpersonal problems: A theoretically-guided item analysis of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Assessment*, 2, 343-361.
- Hirschfeld, R., Klerman, G., Gough, H., Barrett, J., Korchin, S., & Chodoff, P. (1977). A measure of interpersonal dependenc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1, 610-618.
- Horowitz, L. M. (1979). On the cognitive structure of interpersonal problems treated in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5-15.
- Horowitz, L. M., & de Sales French, R. (1979). Interpersonal problems of people who describe themselves as lonel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762-764.
- Horowitz, L. M., & Malle, B. F. (1993). Fuzzy concepts in psychotherapy research. *Psychotherapy Research*, 3, 131-148.
- Horowitz, L. M., & Vitkus, J. (1986). The interpersonal basis of psychiatric symptoms. *Clinical Psychology Review*, 6, 443-469.
- Horowitz, L. M., Alden, L. E., Wiggins, J. S., & Pincus, A. L. (2000).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manual*. The Psychological Corporation.
- Horowitz, L. M., de Sales French, R., & Anderson, C. A. (1982). The prototype of a lonely person. In L. Peplau & D. Perlman (Eds.),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pp. 183-205). New York: Wiley Interscience.
- Horowitz, L. M., Rosenberg, S. E., & Bartholomew, K. (1993). Interpersonal problems, attachment styles, and outcome in brief dynamic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549-560.
- Horowitz, L. M., Rosenberg, S. E., Baer, B. A., Ure π o, G., & Villaseñor, V. S.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885-892.
- Kim, Y., & Pilkonis, P. A. (1999). Selecting the most informative items in the IIP scales for personality disorders: An application of item response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3, 157-174.
- Kim, Y., Pilkonis, P. A., & Barkham, M. (1997).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personality disorder subscales from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9, 284-296.
- Leary, T. (1957).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 New York: Ronald.
- Matano, R. A., & Locke, K. D. (1995). Personality disorder scales as predictors of interpersonal problems of alcoholic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9, 62-67.
- Pilkonis, P. A., Kim, Y., Proietti, J. M., & Barkham, M. (1996). Scales for personality disorders developed from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0, 355-369.
- Pincus, A. L. & Wiggins, J. S. (1990). Interpersonal problems and conceptions of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4, 342-452.
- Pincus, A. L. (1994). The interpersonal circumplex and the interpersonal theory: Perspectives on personality and its pathology. In S. Strack & M. Lorr (Eds.), *Differentiating normal and abnormal personality* (pp. 114-136). New York: Springer.
- Rathus, S. (1973). A 30-item schedule for assessing assertive behavior. *Behavior Therapy*, 4, 398-406.
- Scarpa, A., Luscher, K. A., Smalley, M. S., Pilkonis, P. A., Kim, Y., & Williams, W. C. (1999). Screening for personality disorders in non-clinical pop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3, 345-360.
- Soldz, S., Budman, S., Demby, A., & Merry. (1995). A short form of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s. *Assessment*, 2, 53-63.
- Stern, B. L., Kim, Y., Trull, T. J., Scarpa, A., & Pilkonis, P. (2000).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ersonality scales: Operating characteristic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n nonclinical sampl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74, 459-471.
- Weinryb, R. M., Gustavsson, J. P., Hellström, C., Anderson, E., Broberg, A., & Rylander, G. (1996). Interpersonal problems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Psychometric studies of the Swedish version of the IIP.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 13-23.
- Wiggins, J. S., & Pincus, A. L. (1989). Conceptions of personality disorders and dimensions of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essment: 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 305-316.
- Wiggins, J. S., & Trapnell, P. D. (1996). A dyadic-interactional perspective on the five-factor model. In J. S. Wiggins (E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Theoretical perspectives* (pp. 88-162). New York: Guilford.

원 고 접 수 일 : 2001. 12. 24.

수정원고접수일 : 2002. 2. 4.

게 재 결 정 일 : 2002. 2. 18.

Validation of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KIIP-C and KIIP-PD

Young-Hwan Kim^{*} Yookyung, Kim^{**} Yongrae, Cho^{***}
Jung-Hye, Kwon^{****} Sang-Hwang Hong^{*****} Eun-Young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Health and Community Systems, School of Nursing, University of Pittsburgh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Chosun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Ch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aegu Mental Hospital

The present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KIIP). KIIP-Circumplex scales(KIIP-C) and KIIP-Personality disorder scales(KIIP-PD) are two independent measures that are derived from the IIP. KIIP-C is composed of eight scales which measure interpersonal problems in the circumplex space, comprehensively. KIIP-PD is included with 5 scales, three PD scales that distinguish between patients with any versus no PD and two scales that distinguish between patients with a cluster C personality disorders and the other disorders. Using the sample of university student($N=1,460$) and adult($N=1,474$) standardization sampl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KIIP were calculated. Internal consistency of KIIP-C and KIIP-PD were $.69 \sim .93$, $.68 \sim .85$, test-retest reliability were $.59 \sim .84$, $.61 \sim .80$, respectively. Also, the correlation of validity indices seemed to be appropriate.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and support the utility of KIIP-C and KIIP-PD as a general interpersonal problem measure and a screening tool for the presence or absence of personality disorders.

Keywords : KIIP, KIIP-C, KIIP-PD, interpersonal problems, personality disorders